

## Wendy L. Widder 박사, Daniel, 세션 9, 하나님의 우월한 율법과 그분의 종들의 신실함

© 웬디 위더(Wendy Widder)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Dr. Wendy Whitter와 그녀의 다니엘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9과, 다니엘 6장,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과 그의 종들의 신실함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니엘 6장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의 초점은 하나님의 우월한 율법과 그의 종들의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다리오의 율법, 메대와 바사의 율법 사이의 대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신실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6장 중 5장에 있는 교차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장과 관련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위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의 신실함.

6장에서는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의 법을 따르기를 거부하여 그로 인해 죽음과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야기에는 몇 가지 유사점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왕들 아래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적대적인지, 선의는 있지만 그릇된 길을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 대한 약간의 배경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배경은 바사시대인데, 기억하시면 5장 마지막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에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빌론에서 왕국을 옮겨왔고 이제 우리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인물인 메디아 다리우스를 둘러싼 문제나 질문을 제기합니다.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는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어떤 기록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대 사람 다리오를 아는 유일한 곳은 다니엘서입니다. 흥미롭게도 다니엘서는 그를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로 네다섯 번 언급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에서 그가 메디아 사람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페르시아에는 다리우스라는 이름의 왕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522년이 되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는 약 539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비판적 학문의 방법이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오류라고 말하며,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로 추정되는 다리우스가 실제로 권력을 잡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이후에 글을 쓰고 있는 저자가 단지 그것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기록에서 다리우스라는 이름을 뽑아서 그를 메디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틀렸을 뿐입니다. 오류입니다. 역사적 인물의 측면에서 이를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비록 더 이상 인기가 없지만 수년 동안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방식으로 다리우스는 바빌론을 통치하도록 키루스에 의해 임명된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키루스의 페르시아 제국은 상당히 광대했기 때문에 그는 그 제국의 여러 지역에 관리들을 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가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이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다리우스라는 이름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키루스가 누구를 임명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 실제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실제로는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두 개의 칭호와 이름이 나오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정리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오는 곳은 6장의 끝입니다. 우리는 아직 6장을 읽지 않았지만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우스 통치 기간 동안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인 키루스의 통치.

그러나 그 구조, 즉 대표하는 아람어 구조는 다리우스의 통치 기간, 즉 페르시아인 키루스의 통치 기간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역대상에는 이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에도 감시자가 내려오는 4장에도 비슷한 구조가 나옵니다.

본문에 따르면 감시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두 명의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는 한 이 주장은 처음에는 60년대, 1960년대에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다리우스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잘 알려진 고레스는 사실 메디아인이자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는 메디아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기술적으로 메디아 사람, 메디아 사람, 페르시아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다리우스 대신 메디아 사람 고레스,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화자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와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 중 하나는 화자가 바빌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데스에게. 글썄요, 역사는 그것이 페르시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말하지만 키루스도 메디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있어서는 메디아의 통치자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술자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고대 근동의 연속된 왕국에 관한 다른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이 계획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 문학에서 아시리아-바빌론은 일종의 동일한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일종의 바빌론이 되고, 일종의 바빌론에 의해 점령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시리아의 확장이다.

그리고 미디어가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디어 사람 다리우스를 부름으로써 고대 근동 문학에 알려진 확립된 패턴에 부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해설자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으며, 또한 그 맥락에서 이 친숙한 도식에 부합한다는 신학적 요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텍스트 자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좋아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리오가 뜻을 정하여 전국 방백 120명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들 위에 고관 셋을 두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니 이 방백들이 그들에게 보고하여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였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선하여 모든 대신과 대신들보다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계획하였더라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리오가 있고, 그의 총독이 있고, 감독관이 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번 장을 이끄는 갈등에 개입하게 될 인물들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리우스에 대한 언급과 다니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통해 우리를 5장으로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다니엘은 심령이 특별하고 심령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5장에서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작 부분이 하는 또 다른 일은 6장에서 사용될 몇 가지 말장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구하고 찾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구하다(ba'a)라는 아람어 단어와 찾다(shachach)라는 단어가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다리우스에게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자리를 잃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장난을 준비했습니다.

5절에서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명분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이 음모자들은 그의 성격 때문에 그를 고소할 어떤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발견하지 아니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8절에서는 다리오 외에 다른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형벌을 받도록 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은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찾은 것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말할 것이고, 서술자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해로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찾고 찾는 것이 이 장 전체에 걸쳐 핵심 단어 놀이입니다. 빌 아놀드(Bill Arnold)는 다니엘서 5장과 6장의 말장난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 다니엘 6장에서 이 두 단어는 정치적으로 호의를 얻으려는 다니엘의 적들의 교활한 증오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적들은 모두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적들은 다니엘에게서 결점을 찾아 안전을 구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그곳에서 그는 부산물로서 안전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장의 중심 모티브가 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그의 적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지만 화자는 그들이 실제로 그의 가장 큰 강점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자에게서 구출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단지 주제일 뿐이며 장 전체에 걸쳐 펼쳐지는 말장난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섹션은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방백들, 총독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사실 너무나 훌륭한 관리이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지 아니하면 이 다니엘을 고소할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대신들과 방백들이 왕과 합의하여 그에게 이르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나라의 모든 고관과 대신과 방백과 모사와 방백이 의논하여 왕은 규례를 세워 금령을 시행할지니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왕이여 사자굴에 던져지리이다 왕이여 이제 금령을 정하시고 그 문서에 서명하사 메대와 바사의 율법대로 취소할 수 없게 하시고

따라서 다리우스 왕은 문서와 금지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섹션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법률, 금지 명령, 법령 및 문서입니다. 다리우스의 이 모든 생각은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할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문서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오가 서명할 율법, 즉 메대와 페르시아의 율법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설정했습니다. 공모자들은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 나라의 법과 그의 하나님의 법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과 메대와 바사의 율법이 여기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중 하나를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은 율법을 깨뜨림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법에 얽매인 다리오보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는 이 법과 법의 힘 사이의 흥미로운 대조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율법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 공모자 그룹이 모였습니다. ESV에서 그들이 왕에게 다가가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는 그들이 합의에 의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단어네요. 이를 가장 잘 활용하는 번역이 바로 넷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모로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함께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들은 뭔가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끝내기 위해 정말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은 항상 뭔가를 끝내기 위해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자신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미친 듯이 맹렬하게 노력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사람은 다니엘뿐입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캐릭터의 대조입니다. 관리들이 다리우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눈치채셨나요? 그들은 왕국의 모든 고위 관리들 등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아마도 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정부 관계자 중 누군가가 항상 동의하는가? 다들 동의하셨나요? 나는 그것을 의심한다.

둘째, 장의 끝에 도달하고 공모자들이 처벌을 받으면 그들은 사자 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라면 굴에 던져 넣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설자의 말은 잊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질식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과장된 표현일 것입니다. 저도 이 공무원들이 의도한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모두가 동의한다는 점을 다리우스에게 전달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일종의해야합니다. 정부 관계자 모두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다리우스는 약한 왕으로 묘사될 예정입니다.

여기 그의 관리들이 왔고, 그들은 그에게 이 일을 하도록 일종의 강력한 무기를 주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모두가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는 혼자 서서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읽으면서 여러분은 다리우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3장과 비교해보면 3장에 등장하는 악당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야말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 우리가 그들을 곤경에 빠뜨릴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장에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죄를 지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과 형벌의 조건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법 자체는 좀 흥미롭습니다. 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30일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메대와 바사의 규레이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좀 더 특이한 점은 다리우스가 다니엘이 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지하거나 속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의 뒷부분에서 그는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분은 다니엘의 충실한 사람들을 아십니다.

그는 다니엘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승진시키고 싶어하지만 이 법이 다니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1장 끝부분에서 다니엘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는 다리오 앞에서도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무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이 자신이 위반한 법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종교가 있던 그 시대에는 페르시아인들이 알려지지 않았고, 왕들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기록 측면에서 이 법칙이 실제로 무엇이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존 월튼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미디어 사람 다리오의 법령이라는 기사를 썼고, 다리우스나 다니엘 모두 이 법령이 자신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문제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리우스의 마음 속에 그 법령이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아후라 마즈다를 숭배하는 페르시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가 이 법령을 내릴 당시 페르시아인들은 아마도 조로아스터교의 종교 관습을 타락시켰을 것입니다. 좀 더 혼합주의적이었다.

그들은 종교적인 관습을 혼합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자들은 다리우스를 설득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를 통해 모든 예배를 집중시키면 조로아스터교를 다시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왜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음, 다니엘은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이에요.

그에게는 자신만의 신이 있었고 그는 이 페르시아 문제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적이었습니다. 그게 모두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유죄였습니까? Walton은 Darius의 관리들이 Daniel이 그토록 고위 관리이고 실제로 그를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키려면 비록 기술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실제로 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 그는 그것에서 면제될 것입니다.

나는 그 제안을 좋아한다. 월튼은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다니엘이 어겨야 할 법칙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압박이 가해질 때 다니엘이 정말 결백하고 다리우스가 자신이 결백하다고 생각했다면 다리우스는 질 것입니다. 그는 그의 관리들에게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 있다. 적어도 내 생각에 다리우스는 이 결정에 강력히 개입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공모자들이 계속 다리우스에게 와서 그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들이 그 앞에 온 세 번을 비교하고 그들의 연설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우스는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위 관리들은 여러 차례 연설을 했고, 이 법에 관해 다리우스에게 긴 연설을 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명만 합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괜찮은. 다음 부분인 10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금지 명령, 즉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문서에 서명이 된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곳의 다락방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들이 합의나 공모로 와서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니라. 그들이 나아와서 금령에 대하여 왕 앞에 고하되 왕이여 30일 이내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금령에 서명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은 메대와 바사의 율법에 굳게 세워 취소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유다 포로 중 하나인 다니엘이 왕과 왕이 서명하신 금령을 무시하고 하루 세 번씩 간구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를 구하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수고했습니다.

괜찮은. 그래서 다리우스는 금지 명령에 서명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일상을 계속합니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간다.

그는 그것이 서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갔다. 그는 하루에 세 번씩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우리는 이 루틴을 통해 그를 따라갑니다. 서술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열린 창문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가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 생각엔 여기에 몇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

우선, 그는 정말 눈에 띄니다. 그는 열린 창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자들은 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그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또한 아마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이 표현은 실제로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어디에서 기도했는지 알려줄 뿐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할 때 자기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흠으심으로 벌하실 날, 나쁜 날을 고대했습니다. 국가들에게.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 저 먼 땅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의 세부 묘사를 보면 다니엘이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회복을 호소하고 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 앞에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을 사로잡은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와 흥미로운 연관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다니엘이 그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패턴은 아니지만 나중에 유대인 관습에서 매우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도 구약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인물은 단 세 명뿐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민족의 죄를 고백할 때였다.

따라서 아마도 성전과 회복, 다니엘의 유배지와 연관성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이 열리기 전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이미지에서 모두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모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그들의 율법이 금지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에 대한 긴 설명, 그의 일상적인 기도에 관한 전체 내용, 이 장에서는 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모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망명 세트에 사는 누군가의 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일상은 그에게 중요했고, 실제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 장에는 다니엘이 강조되는 부분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글쎄, 다니엘,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누구인지 압니다. 끝까지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만 집중하세요. 서술자는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지에 대한 모범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을 이어갔죠. 그의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세 번씩 자기 방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물론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지만 다니엘에게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도 자신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깁니다. 다니엘은 왜 창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는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는 언약을 지키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실한 유대인입니다. 다니엘이 유죄임을 알게 된 다리우스의 반응은 괴로움과 속상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다니엘이 유죄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출하느라 하루를 보냈다고 하네요. 그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명백히 바꿀 수 없는 법을 고치기 위해 그의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왕 자신이 자신의 법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번복할 수도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다리우스는 대조를 이룬다. 다니엘은 그 율법을 듣고도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이 법의 효과를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수고합니다. 15-18절. 메대와 바사의 이 하위 율법인 이 율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화합하여 왕께 나아와 또 공모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아니니이다 왕이 세우신 금령이나 법도는 메대와 바사의 규례니 능하지 못함이니이다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왕이 명을 내리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었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돌을 가져다가 굴 어귀를 막고 왕이 자기의 인과 그의 주의 인으로 도장을 찍어 다니엘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게 하였더라. 그 후 왕은 궁궐로 가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지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기분 전환도 가져오지 않았고, 잠도 그에게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공모자들은 다리우스에게 돌아옵니다. 그들이 다리우스에 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매번 말했고 내레이터는 우리에게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이 왕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비교해 봅시다. 6절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왕에게 나아오니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제안을 합니다.

13절, 그들이 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곳에는 영생이 없나이다 하니 왕이여,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금령에 서명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은 실제로 왕을 함정에 빠뜨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물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이 그것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은 왕실의 의례부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영원히 사소서. 그런 다음 그들은 왕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세 번째에는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여, 그것은 메대와 바사의 규례입니다. 이 법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 공모자들은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리우스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로든 그들에게 실제로 맞설 수 없습니다.

Sharon Pace는 Daniel에 대한 논평을 갖고 있으며 Darius의 무력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좀 흥미로운 진술이네요. 그녀는 그의 신하들에 비해 다리우스의 무력함으로 인해 다니엘이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리우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의 구실에 대해 결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왕은 법령을 변경할 수 없다는 법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그 법령을 대체할 다른 법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왕의 무능함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신하들의 지배력과 대조된다.

다니엘 6장은 우리에게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불변의 법칙과 매우 약한 왕을 제시합니다. 다니엘의 신의 법과 매우 강하고 견고한 다니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뚜렷한 대조가 있습니다.

다리우스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평론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다니엘의 신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칙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신이여, 나는 네가 신에게 끝까지 기도해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네가 섬기는 신이 너를 계속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봉인된 이 구덩이에 대한 설명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덩이를 봉인했습니다. 돌을 가져와 굴 어귀에 놓으니 왕이 자기의 인과 그의 주의 인으로 인봉하여 다니엘의 일이 변경되지 않게 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나올 때 조금 더 나아가도 이 책이 먼저 나오므로 실제로 울려 퍼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장사지낸 일,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마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는 다니엘의 그늘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무덤에 무슨 짓을 했나요? 그것은 돌로 봉인된 다음 인장으로 봉인되었습니다. 그의 인장이 그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따라서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요점은 다니엘에 관한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니엘과 관련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음, 공모자들은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사자 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레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다니엘에 관한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일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져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침에 무사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변경되지 않도록 인장 반지로 봉인했다는 내레이터의 진술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19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과 조금 비슷하네요. 날이 밝자 왕이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자 그는 괴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자들에게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영원히 사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그의 앞에 순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왕이여, 나는 당신 앞에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매우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웠으나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더라.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아내를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라.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쥐고 그들의 뼈를 모두 부수었습니다. 이것이 플롯의 클라이막스이다. 우리는 다니엘이 굴에서 밤을 보내는 것을 보고 해설자가 다니엘과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다리우스와 같은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굴은 봉인되었고 우리는 기다리기 위해 다리우스와 함께 궁전으로 가고 왕이 다니엘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왕은 불안합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모든 설명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서둘러, 괴로운 목소리로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내용은 고대 근동 지역의 시련으로 알려진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있다고 추정되면 신에게 결정을 맡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경우에는 신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자 굴에 던질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면 신들은 그가 결백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옳았으며 그는 유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음날까지 죽지 않았다면 그는 용서받았을 것이다. 다리우스가 다른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오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왜 그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당신에게 배달할 수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메아리는 우리가 다니엘에 있었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도전이었습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레이터는 Darius가 그것을 반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리우스는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구약성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가리킨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방인 왕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그가 다니엘이 살아 있는지 알기도 전에 그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이 살아 있는지 알기도 전에 느부갓네살에 대해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겸손이 필요했습니다.

다리우스는 다니엘이 행한 일을 보기도 전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대답하고 그의 주장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과 다리오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천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3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서 네 번째 인물이 불 속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 천사 다니엘은 굴에서 보낸 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천사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아마 그 천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본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는 보호받았고 그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공모자들의 결과는 매우 끔찍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아내가 사자 굴로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은 압도당했고 그들의 뼈는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 때문에 가족 전체를 처벌하는 방식은 기업 책임의 관습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런 다음 다리오 왕은 온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끝까지 이르리라.

그는 구원하고 구출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의 세력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종결 편지는 다리우스가 자신의 왕국에 보내는 편지이며, 네부카드네자르가 4장에서 보낸 편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왕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두 왕은 그들이 목격한 것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는 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실제로 느부갓네살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신실한 종을 사자에게서 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과 달리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어떤 겸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의 송영은 처음 여섯 장의 많은 주제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다시 듣고 모든 장과 장소를 생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우리는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끝날 것이다. 그는 구원하고 구출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의 세력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야기 섹션의 끝입니다. 해설자는 이 모든 주제를 다리우스의 놀라운 송영으로 통합하여 이 여섯 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선포하고, 자신이 구원하고 구원하는 자신의 성품을 선포합니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영원히 다스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니엘이 고레스의 통치, 다리우스의 통치, 그리고 페르시아인 고레스의 통치 기간 동안 번영했다는 것에 대한 작은 추가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일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둘 다라고 말합니까? 글썄요, 저는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국들의 행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미디어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미디어 사람 다리오의 통치 기간과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시대에 번영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같은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서술자의 요점은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미디어, 페르시아.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비교하는 이 장의 묘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간의 법은 적어도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는 파괴될 수 없는 불변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쓴 사람은 사로잡혀 갔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법에 충실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장은 또한 다니엘을 신실함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의 기도에 있어서의 신실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그의 일상. 그리고 나는 또한 신약성서와의 이러한 미묘한 연결고리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복음에 대한 마태의 설명은 다니엘이 무덤에서 인봉당하고 왕이 아침이 밝을 때 그곳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순종과 순종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죽을 하나님의 훨씬 더 큰 종을 예시할 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살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생각에 예수님은 신약성서에서 더 큰 다니엘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6장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이르면 묵시문학으로 옮겨가서 책의 나머지 부분까지 거기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것은 Dr. Wendy Whitter와 그녀의 다니엘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9과, 다니엘 6장,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과 그의 종들의 신실함입니다.